

나주시 연말까지 친환경자동차 1500대 시대 연다

전기차 100대·전기 이륜차 50대 2차 민간 보급 사업 추진 1760만원 지원... 15일부터 신청

‘전기차 보급률’ 전남 1위를 달리고 있는 나주시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올 연말까지 친환경자동차 1500대 시대를 열기 위해 ‘2021년 전기차 2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100대, 전기 이륜차 50대 보급을 목표로 진행되며,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7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달 10일부터 현재까지 나주시에 주소 둔 개인·법인·단체 등이다. 신청서는 오는 15일부터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구매 희망 차종을 판매하는 영업소와 지점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ev.or.kr)’에 공지된 ‘환경부 보조금 인증’을 통과한 차량 중 2개월 이내 출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앞서 나주시는 친환경차 민간보급사업을 개시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공공·민간용 전기차 1332대를 보급했다. 하반기에 공급하는 150대를 더하면 전기차 보급물량은 1500여대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보급 물량은 나주시가 역점 추진하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비전의 세부 성과 지표인

‘2025년까지 전기차 3000대 보급’ 목표량의 50%에 해당한다. 나주시는 내년에도 400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이며, 충전시설을 비롯한 친환경차 인프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3년 간 전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보급함으로써 에너지수도 나주의 위상과 친환경차 선도도시 입지를 굳건히 다져왔다”며 “전기차 3000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날까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달고 아삭한 함평산 단감 ‘원추’추석 전 수확·출하



국산 품종으로 과즙이 풍부한 함평산 ‘원추’ 단감을 9월 중 맛 볼 수 있게 됐다. 함평군은 지난해부터 함평전지감연구회를 중심으로 20개 농가 5ha에 신품종 원추 단감 재배지를 조성해 왔다. 올해 추석 전 첫 수확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재배하는 단감의 80% 이상은 일본에서 도입한 품종이다. 농촌진흥청이 ‘태추’, ‘원추’, ‘로망’ 등 다양한 국산 품종의 단감을 개발해 온 이유다. 이 가운데 원추는 태추와 신추 단감의 교배종으로 식감이 아삭하고 과즙이 풍부하며 껍질이 얇은 것이 특징이다. 9월 중순이 수확 적기다. 함평군 관계자는 “원추는 15브릭스의 고당도로 과중 350g 인퓌의 대과 품종에 모양도 좋아 추석 차례상에 올리기에 제격”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공공도서관 11월까지 나의 미래 자서전쓰기 운영

“자서전으로 미래 디자인하세요.” 담양공공도서관이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나의 미래 자서전쓰기’ 프로그램을 11월까지 10회 운영한다. 자서전쓰기는 ‘유튜브 스타 금은동’과 ‘방과후 초능력 클럽’ 등으로 알려진 임지형 동화작가를 초빙해 고서중학교 1학년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글쓰기 기초와 자서전 쓰기 교육을 진행한다. 참가 학생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미래의 꿈을 상상해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또 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긴 미래 자서전은 프로그램 종료 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발간될 예정이다. 조선옥 담양공공도서관 주무관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삶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

강진군 대표 관광지 가우도 모노레일·출렁다리 준공식

9월부터 정상 운영 지역명소 부상

강진 가우도에 모노레일과 새 출렁다리가 준공을 알리고 강진군 대표 관광지로의 위상을 드러냈다. 강진군은 13일 오전 이승욱 군수와 위성식 군의 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단체장, 군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 가우도 모노레일과 출렁다리 준공식을 가졌다. 강진군의 대표 관광지인 가우도 출렁다리는 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해 1.8m의 폭과 길이 150m, 높이 15m로 설치해 개통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가우도 돌레길 코스와 연계돼 짜릿함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모노레일은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했으며 교통약자들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위해 가우나루에서부터 섬 정상에 지리한 청자타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길이는 264m, 차량 30인승 2대로 15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청자타워까지 올라가는데 5분 정도 소요된다.



이승욱 강진군수가 가우도 모노레일 및 출렁다리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지난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9월1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성인 기준 2000원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협조로 가우도 모노레일과 출렁다리를 성공적으로 준공

화순경찰 운수업체 방문 대형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화순경찰이 지역 운수업체를 방문,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화순경찰서는 지난 9일 광주·전남 레미콘 임대사업소 등 운수업체 8개소를 방문해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형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 활동을 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지역(여수, 강진)에서 대형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대형차량이 자주 다니는 화순군 도곡면 지방도로에서도 25t LPG 차량이 전복되는 등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서장 명의로 서한문을 배부하면서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당부했다. 고은경 화순경찰서장은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교통사고 위험 도로에 대한 시설물을 개·보수해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위원 22명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출범

실무자·학부모 등 교육발전 모색

지역인재 양성 방안 등 장성군의 교육분야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최근 출범식을 가진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는 군의 교육정책과 교육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자문기구다. 지난 6월에 제정된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 설립됐다. 의장인 유두석 장성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원, 장성교육지원청 공무원, 교육 관련 실무자, 학부모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 관련 정책 제안, 우수학교 육성 등에 대한 안건들을 협의하는 한편, 학교별 현안사업 관련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올해 인재 육성, 교육 복지 등 4개 분야 6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비 62억원을 지원한다. 중점사업으로 장학금 확대와 고등학교 무상 교육, 무상 급식 지원이 꼽힌다. 또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제공하는 사업도 이목이 쏠린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장성 교육의 장기적인 비전을 모색하겠다”면서 “안정적인 교육예산 지원으로 교육 복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은 지난 9일 장성군청 2층 상황실에서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장성군 제공>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버저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